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23일

현대차(005380)

BUY | TP 650,000원 | CP 353,500원

기아(000270)

BUY | TP 190,000원 | CP 115,400원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8일 | 산업분석

자동차

중국 전기차, 지금은 배로 2027년부터는 공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8월 누적 135% (YoY) 증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8월 누적 -21% (YoY))을 타개하고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8월 및 누적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각각 89.5만대/609.9만대로 78%/71% (YoY) 증가했고, 전체 중국 자동차 판매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누적 각각 37.9%/35.5%(+15.9%p)로 높아졌다. 자동차 수출 중 전기차(=신에너지차)의 수출은 각각 51.8만대/332.9만대로 154%/135% (YoY)로 전체 수출의 57.9%/54.0%(+14.5%p)를 차지했다. 특히, 경형/소형 순수 전기차 비중이 50% 중반(+10%p 이상)으로 상승했다. 8월 전기차 수출 중 업체별로는 BYD 18.4만대, 지리 7.0만대, 체리 6.8만대 순으로 상위 3사가 63%를 점유한다(테슬라 3.6만대). 수출 국가는 1~7월 브라질 30.7만대, 벨기에 25.9만대, 영국 23.3만대, 호주 20.8만대, 필리핀 16.3만대, 태국 15.5만대, 독일 9.6만대, 이탈리아 9.4만대, 한국 9.3만대, 스페인 8.9만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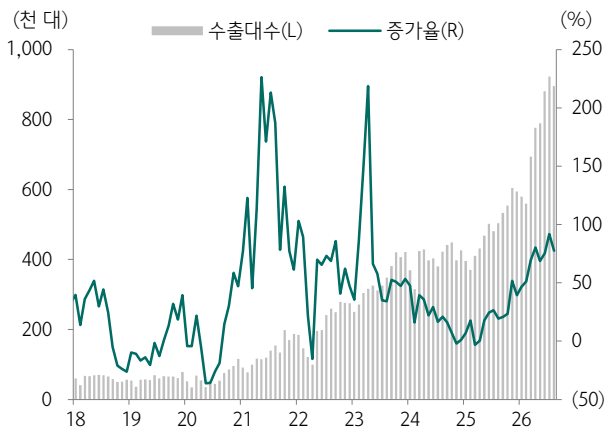
직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으로: 중국 완성차의 해외 생산능력 확대

중국 완성차들은 해외 현지 생산도 확대하고 있다. IEA 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능력은 2025년 약 170만대이다. 2026년 이후 발표된 중설 계획을 더하면 2030년에는 3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장의 절반 이상이 동남아에 몰려 있고, 전반적인 가동률은 낮은 편이지만, 계획 물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 조립하는 KD 방식으로 현지 생산이 늘어날수록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주목할 점은 경로별 속도 차이이다. BYD의 헝가리 공장의 양산이 1년 지연되었고, 튀르키예는 2년째 착공이 미뤄지는 등 자체 신설은 느린 편이다. 반면, 유희 설비 인수와 위탁생산은 자본 부담이 적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YD와 GWM의 브라질 공장들은 각각 포드와 벤츠의 공장들을 인수해 2025년 생산을 개시한 것이다. 체리는 닛산의 남아공/스페인 공장을 각각 인수/합작했고, 샤오펑/GAC는 오스트리아 마그나 슈타이어에 위탁생산을, 립모터는 스텔란티스의 스페인 공장에서 합작 생산을 시작한다. 이렇듯 중국 완성차들의 해외 진출은 기존 완성차들의 설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이 보여준 경로, 유럽 확산은 2027~28년 → 자동차 Valuation의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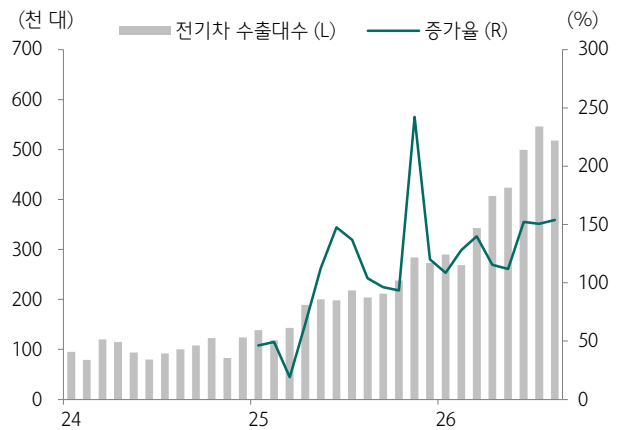
중국 완성차들의 직수출 증가와 현지 생산 강화는 경쟁심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일례로 유럽 내 BYD 점유율은 2025년 상반기 0.7%에서 2026년 상반기 1.8%로 상승했고(판매대수 +163% (YoY)), 브라질 내 BYD 점유율은 2024년 3.1%, 2025년 4.4%에서 2026년 8월 누적 7.8%로 상승했다. 특히, 브라질 내 중국 브랜드 합산 점유율은 2024년 6.9%에서 2026년 8월 누적 17.8%까지 상승했는데,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2025년 3분기 이후 점유율이 10%에서 2026년 8월에는 23%까지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점유율 급등의 방아쇠가 직수출이 아니라 현지 공장 가동이었다는 것이다. 유럽은 아직 그 이전 단계다. 중국 브랜드들의 유럽 점유율이 상승 중이지만, 대부분 중국산이라 EU의 관세와 최저가격제 등이 일부 방어막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내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2027~28년에는 방어막이 약화되고, 브라질에서 확인된 점프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경쟁심화는 판매대수보다 판매단가와 인센티브에서 먼저 드러날 것이고, 이 구간 방어가 확인되기 전까지 완성차 Valuation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1. 중국 자동차 수출대수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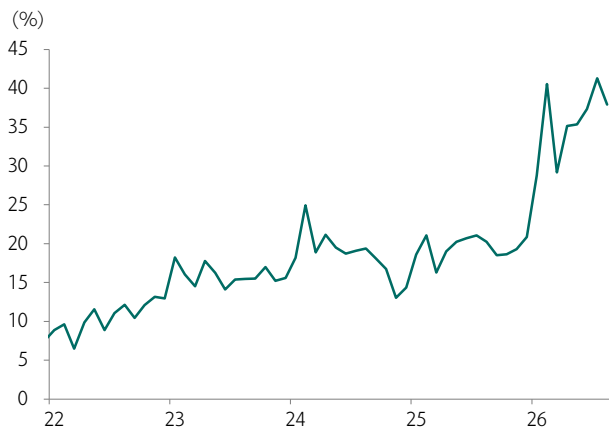
자료: CPCA, 하나증권

도표 2. 중국 전기차 수출대수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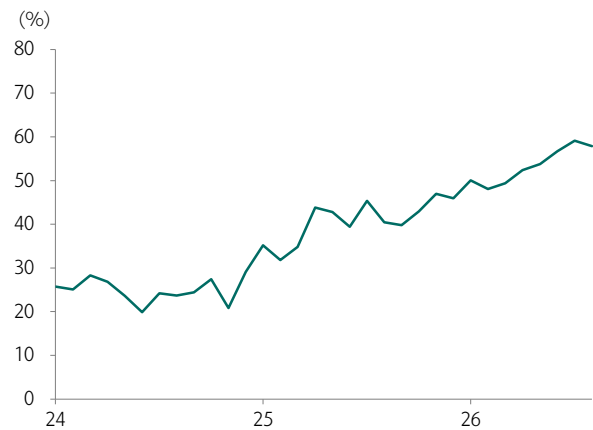
자료: CPCA, 하나증권

도표 3. 중국 자동차 생산 중 수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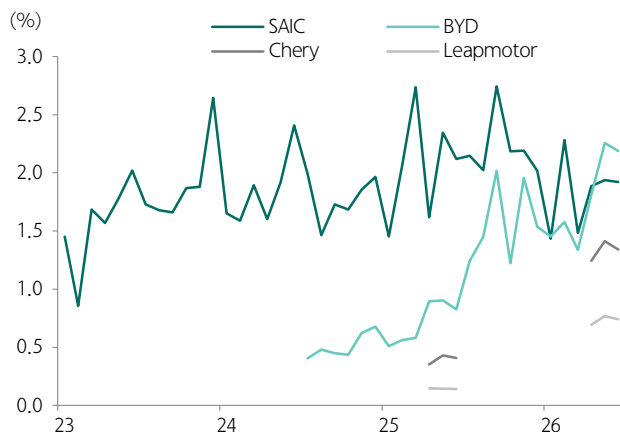
자료: CPCA, 하나증권

도표 4. 중국 자동차 수출 중 전기차 비중 추이



자료: CPCA,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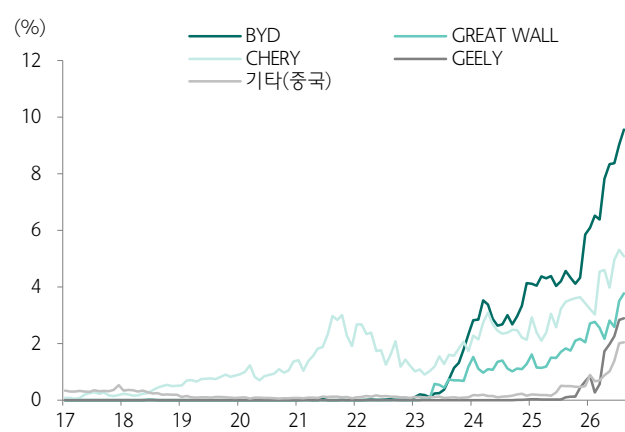
도표 5. 유럽 내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점유율 추이



주: Chery와 Leapmotor의 2025년 7월~2026년 3월까지 미발표

자료: ACEA, 하나증권

도표 6. 브라질 내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점유율 추이



주: 기타(중국)는 CAO A CHANGAN, GAC, JAC, MG, FOTON, LIFAN, SHINERAY, EFFA

자료: ANFAVEA,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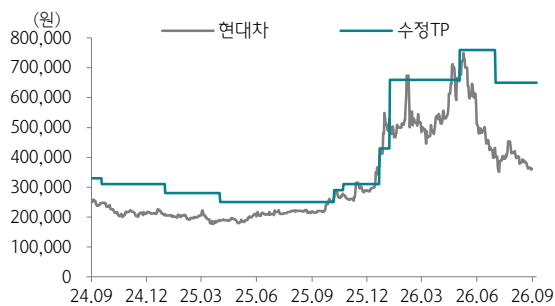
도표 7.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2024년 이후 해외 공장 현황

기업명	국가	완공 시점	상태	생산능력	방식
BYD	우즈베키스탄	2024년 6월	가동 중	5만대(향후 30만대)	합작
	태국	2024년 7월	가동 중	15만대	신설
	브라질	2025년 7월	가동 중	15만대(향후 30만대)	인수
	캄보디아	2025년 4분기	가동 중	1만대	신설
	인도네시아	2026년 3분기	가동 중	15만대	신설
	헝가리	2026년 4분기	건설 중	15만대(향후 30만대)	신설
	파키스탄	2026년 4분기	건설 중	미공개	신설
창안	튀르키예	미정	지연	15만대	신설
	태국	2025년 5월	가동 중	10만대(향후 20만대)	신설
SAIC/MG	스페인	2028년	계획	12만대	신설
GWM	브라질	2025년 8월	가동 중	5만대(향후 25만대)	인수
체리	말레이시아	2026년 중	건설 중	10만대(향후 30만대)	신설
	남아공	2026년 3분기	가동 중	미공개	인수
	스페인	2026년 중	가동 중	5만대(향후 15만대)	합작
	베트남	2026년 중	건설 중	7.5만대(향후 20만대)	합작
샤오핑	오스트리아	2025년 9월	가동 중	6.5만대	위탁
	인도네시아	2025년 7월	가동 중	1만대	위탁
지리	인도네시아	2025년 3분기	가동 중	2만대	위탁
	베트남	2026년 말	건설 중	7.5만대	합작
GAC	태국	2024년 7월	가동 중	5만대	신설
	인도네시아	2025년 2분기	가동 중	2만대(향후 5만대)	위탁
	오스트리아	미정	계획	미공개	위탁
립모터	인도네시아	2026년 3분기	가동 중	미공개	위탁
	스페인	2026년 하반기	계획	미공개	합작

자료: 각종 언론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증권 집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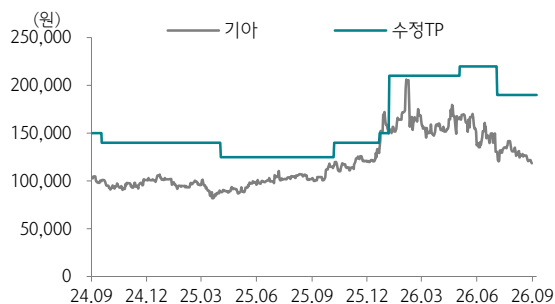
현대차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4	BUY	650,000		
26.5.26	BUY	760,000	-27.88%	-1.32%
26.1.30	BUY	660,000	-18.69%	7.88%
26.1.13	BUY	430,000	12.31%	27.67%
25.11.14	BUY	310,000	-6.27%	18.39%
25.10.30	BUY	290,000	-5.09%	0.52%
25.4.24	BUY	250,000	-15.34%	4.40%
25.1.23	BUY	280,000	-29.38%	-20.71%
24.10.10	BUY	310,000	-29.91%	-19.84%
24.7.11	BUY	330,000	-24.94%	-16.8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기아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7	BUY	190,000		
26.5.26	BUY	220,000	-30.70%	-22.64%
26.1.29	BUY	210,000	-23.09%	-1.90%
26.1.13	BUY	150,000	5.10%	14.73%
25.10.30	BUY	140,000	-14.95%	-4.86%
25.4.25	BUY	125,000	-19.62%	-5.52%
24.10.10	BUY	140,000	-31.59%	-23.79%
24.7.11	BUY	150,000	-29.28%	-18.0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2026년 9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